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이용률이 미국을 선도하는 수준인 29.13 퍼센트로 늘어났다고 발표

뉴욕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활용율 30 퍼센트라는 목표에 빠르게 접근

2018-109 회계연도에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이 약 30 억 달러의 주 계약 수주, 이는 2011 년 부터 약 160 억 달러 지원에 해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 계약에 대한 소수자 및 여성 사업자(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의 이용률이 2018-2019 회계연도에 29.13 퍼센트에 이르러, 다시 한번 미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는 2018-2019 회계연도 동안 주 계약에서 29억 3,000만 달러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의 제9회 연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포럼(MWBE Forum)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수천 명의 비즈니스 소유자, 지역사회 지도자, 주 공무원 및 계약자 대표가 참여해 뉴욕주 계약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이 주 계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면, 모두를 위해 더욱 좋은 뉴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최고의 이용률을 달성했다는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내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는 점과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더욱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서 알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 유망한 기업가들을 위해 장벽을 부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의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의 부활 및 확장을 통해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선도적인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행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률 29.13 퍼센트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Cuomo 주지사는 주 계약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주정부 조달 할당 목표를 20 퍼센트로 설정했습니다. 2년 후,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4년에 Cuomo 주지사는 이 목표를 30 퍼센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활용률 목표였습니다. 이후 뉴욕주는 2017-2018 회계연도에 28.62 퍼센트의 활용도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18-2019년도 회계연도에 뉴욕주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활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29.13퍼센트에 달했으며, 이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에게 주 계약을 통해 29억 3,0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11년부터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는 주 계약에서 159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최고경영자, 대표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괄적 경제 발전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Cuomo 주지사의 30% 활용률 목표 달성을 향해 꾸준히 진전을 보였으며, 오늘은 미국을 선도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뉴욕주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활용률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정부 기관 및 당국의 지속적인 참여, 비즈니스 소유자를 위한 강력한 기술 지원 옵션을 결합한 지속 가능하고 조정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에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원는 현재 뉴욕주의 연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포럼(MWBE Forum)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인 "국가 선도(Leading the Nation)"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미국 최고 수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양일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오늘 오전 일찍 시작되었으며, 2,100명 이상의 비즈니스 소유자, 지역사회 지도자, 주 공무원 및 계약자 대표가 참석합니다. 참석자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권한을 제공하는 제15-A조의 재승인부터 자금 조달 지원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및 수요 활용 이니셔티브(Supply & Demand Utilization Initiative)

뉴욕주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활용률이 Cuomo 주지사의 목표인 30 퍼센트에 가까워짐에 따라, 뉴욕주는 낮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활용률이 낮은 부문을 파악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활용가능성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를 맞춤화함으로써 뉴욕은 경제 전반의 다양한 기업들이 주 계약에서 경쟁하여 뉴욕의 활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공급 및 수요 활용 이니셔티브(Supply & Demand Utilization Initiative)는 광고 및 마케팅,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환경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험, 법률 서비스, 의료 및 임상 서비스, 부동산, 통신, IT 컨설팅, 소프트웨어, 의료, 치과, 실험실 용품, 사무용품, 가구 및 식품 및 음료 등 부문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략적 파트너의 전문 웹 세미나 및 기술 서비스를 포함하여 산업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Mentor Protégé Program)

올해 뉴욕주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Mentor Protégé Program)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요 계약자 멘토를 인증받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회사와 매칭합니다. 멘토 회사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에게 실무 기술 지식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주 계약 기회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제15-A조의 재승인

제15-A조는 뉴욕 주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틀를 제공하며, 올해 초 Cuomo 주지사의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 업데이트 된 법률은 국가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제4회 연례 Carey Gabay 우수 혁신상(Annual Carey Gabay Excellence and Innovation Awards)

뉴욕주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네 곳은이 Carey Gabay 우수 및 혁신상(Carey Gabay Excellence and Innovation)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Carey Gabay는 2015년 9월에 비극적으로 살해당하기 전에 Cuomo 주지사의 차석 고문이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선임부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상은 Carey Gabay를 기리며,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혁신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는 등 그가 뉴욕주를 위해 봉사할 때 원칙으로 삼았던 것을 기준으로 뉴욕의 인증을 받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에게 수여됩니다.

2019년 뉴욕주의 인증을 받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New York State Certified MWBEs)으로서 기업가 정신 및 성과(Entrepreneurial Spirit and Achievement)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ura Cueva, 인테리어 이노베이션스(Interior Innovations)
- Kirit Desai, 드라이브 테크놀로지(Derive Technologies) LLC
- Mary Warren, 블랙 호스 그룹 유한회사(Black Horse Group, LLC)
- Edward O. Watts, Jr., 와트 건축 및 엔지니어링, D.P.C.(Watts Architecture & Engineering, D.P.C.)

뉴욕주 인증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State-certified MWB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인증 캠페인(MWBE Certification Campaign)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12) 803-241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